

한국과 미국의 창업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전략 수립

장 대 성*

Building Strategy for Successful Venture Creation Education in Korea by Reviewing Venture Creation Education of Korea and USA

Dae-sung Chang*

요 약

미국에서의 벤처기업의 확산과 성장은 1980년대 불경기의 미국을 지난 1990년대의 10 년 간 사상 최대의 호황경제로 만들었다. 미국 벤처기업의 성공은 대학과 벤처기업간의 산학협력은 물론 대학의 질 높은 벤처창업 교육에 있었다. 미국의 벤처창업교육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오래되었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문화적 역사적 다른 한국에서 성공적인 벤처창업교육을 위한 5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Venture Creation Management in the USA has been very successful since World War II. The venture creation management education has made the venture enterprises' management successful in the USA. Thus, this study compared the venture creation management education of Korea with that of the USA and provided the strategic suggestions for successful venture creation management in Korea.

I. 서론

창업교육은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해 주는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병주, 1998). 이러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박춘엽, 1993, 1997 ; 조병주, 1998 ; 중소기업청, 1997). 미국은 이미 고등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문화가 성숙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1월 부터는 벤처창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동경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조선일보, 2000. 11. 29) 한국에서는 아직 단지 4년제 대학에서만 정규 교과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양 과목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할 뿐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제도권 교육에서 창업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음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인 건전한 창업정신과 창업문화를 국민적 기반 위에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고등학교에도 창업과 창업교육의 열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각 대학의 내실이 있는 창업교육을 통해 배출된 젊은 창업가들에 의해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여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의 활력소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벤처는 모험과 창조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벤처활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보다 모험적인 벤처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강대국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민족과 국가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만 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벤처 기업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훌륭한 벤처기업가는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를 많이 배출한 미국의 벤처교육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벤처교육현황을 비교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벤처교육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벤처창업교육의 장기적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고자 함이다.

II. 창업가와 창업 정신

2.1.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다 (Wortman, 1987 ; Carnier, 1996). Schumpeter (1934)가 처음으로 창업가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래로 창업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Drucker (1985)는 창업정신을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rtner (1985)는 창업 정신이란 새로운 조직의 창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Schumpeter (1934)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을 완전히 구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경영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한다면 창업정신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창업정신은 지속적인 혁신적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근본적인 원천인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Carnier, 1996). 급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 신기술의 급속한 개발, 자유무역 등으로 모든 조직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 기술 등을 창조해 내는 것도 포함된다(Intrapreneurship). 즉 창업정신이란 신 조직의 창조뿐만 아니라 기존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조직, 스포츠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철학과 정신을 창업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창업정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들과 Dimension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혁신정신, 위험감수, 의지, 도전실천력이라 할 수 있다 (Moon and Peery Jr., 1997). Moon and Peery Jr. (1997)은 창업 정신은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것" 이라는 Oliga (1972)의 의견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위험을 초과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창업정신의 모형을 만들었다.

Entrepreneurship = F(reward-risk)

Moon and Perry Jr. (1997)의 주장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이라는 Timmons (1994)의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oon and Peery Jr. (1997)은 창업에서 위험 감수 정신은 투기와는 엄격히 다르다 하고 있다. 그들은 투기는 유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 의지가 없는 위험감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업정신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혁신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의 창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2. 창업자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창업자는 비 창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창업자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Brockhaus, 1980a, 1980b).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가 비창업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온 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그 다른 이유는 창업자 자신들의 개인적 성격과 배경에서 온다고 Gartner (1985)는 밝히고 있다. 또한 Gartner (1985)는 창업자들이 비창업자들과 다른 것은 물론 창업자들간에도 창업자들과 비창업자들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Mckelvy (1982)도 창업자가 동일 자질의 집단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창업자는 비창업자와 다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에서 양성될 수 있으며 창업자들 간에도 그들이 성장해온 배경에 따라 창업에 관한 자질은 물론 창업동기와 목적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서로 다른 배경들로 인해 창업자들도 서로 다른 특성들로서 구분 될 수 있다.

Schumpeter (1936)는 창업자를 창조적 파괴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라고 하면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잘 통합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새로운 구성요소란 1)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생산 2) 새로운 생산 방법의 창출 3) 새로운 시장의 전개 4) 원료나 부품의 새로운 공급처 장악 또는 5) 기존산업의 새로운 재구성 등을 말한다. 또한 Schumpeter (1936)는 창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 수행하는 최고경영자들만이

아니라 말은 바 직분 및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내의 근로자들도 창조적 파괴에 참여 및 기여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고 주장하였고 Carnier (1996)도 조직 내에서 창조행위도 창업이라고 강조하여 Schumpeter (1936)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Leibenstein (1968)은 창업자란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irzner (1985)는 창업자란 이익의 기회를 감지하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보충시켜주는데 선두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night (1921)는 불확실성의 회피 기질이 아주 적은 사람 즉 불확실성의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chumpeter (1934)의 주장처럼 새로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벤처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창업정신으로 조직을 경영하지 않으면 창업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 사업자는 창업자라고 볼 수 없고 부를 획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파괴와 불확실에 도전하는 자를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Watson (1998)은 개인적 배경, 창업의 동기함양, 성장 등이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Morrison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가는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위기를 잘 관리하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강한 도덕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Morrison(1999)은 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 창업가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창업가정신의 발현의 기초로 보았다.

Lee & Peterson (2000)은 건전한 사회적 환경, 좋은 재정적 지원상태 그리고 창업자들의 질 좋은 경험을 등을 기초로 하여 동기 부여된 창업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창업자들이 속한 국가가 창업정신을 양양시키고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국가적 창업문화가 없이 경쟁력 있는 창업가들이 배출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Watson (1998)과 Morrison (1999)의 의견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적 기질을 보유해야함은 물론 창업의 동기와 다양한 학문적 욕구가 함양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Lee & Peterson (2000), Watson (1998)과 Morrison (1999)의 연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훌륭한 창업가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교

육을 통해서 성장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Ⅲ. 벤처창업 성공요인과 성공 창업자의 특성

3.1. 벤처창업성공요인

지난 10여 년 동안의 현대 경제의 건인차의 역할을 해 온 것은 바로 벤처 창업정신이었고 미래에도 벤처창업정신은 계속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벤처 창업정신이 없는 조직과 개인은 승리하지 못하였고 벤처정신이 왕성한 국가, 조직 그리고 개인이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서 경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산업자본도 자본주의 사회를 성숙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동이고 벤처 창업가들은 계속 해마다 수많은 기업들을 새로 창업함으로써 고객들의 경제적 수요 및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특히 급격히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은 그 규모를 작게 할 수 있고 새로운 벤처 창업가들은 많은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Mazzarol, et. al., 1999)

이렇게 벤처기업들의 성공은 바로 국가 경제 부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벤처기업들의 성공에 관한 연구조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간 벤처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으며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이상적인 경영모형이나 벤처 창업가의 자질에 대하여는 아직 통일된 이론은 없다. (Gibb and Davis, 1990)

Sanberg and Hofe(1987)는 창업에 관한 경험 관을 갖고 차별화 전략으로 경영을 해야 성과가 좋다고 하고 있으며 Storey(1994)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는 창업가의 개인적인 성격과 기업조직의 특성 그리고 구사하는 사업전략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했다. Mazzarol, et. al.(1990)은 호주에서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자들 성공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성, 창업 前 공무원 직업 경력 그리고 실업경험(失業)등이 창업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경력에 있는 창업자들이 창업성공에 좀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失業 경험들도 창업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영관리자 경험은 창업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Macmillan et. al., 1987)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이라고 하며 벤처의 성공은 제품에 대한 시장의 매력도와 상관이 있으며 벤처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Smallbone et. al(1993)은 벤처기업 성장에는 벤처기업 대표의 조직에 대한 헌신적 기여가 중요하며 비록 벤처기업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지만 시정에 대한 제품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며 Macmillan et. al. (1987)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창업가는 운영적 업무에 대하여는 권한 이양을 함으로써 전략적인 계획업무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며 벤처가의 전략적 임무수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성공적인 벤처기업은 경영교육을 잘 받은 전문 경영인을 활용함은 물론 경영교육관련 컨설팅 등 경영능력과 관련된 지원학보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Watson(1998)은 창업자들은 실패집단과 성공집단 등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창업성공과 관련된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 성공 자들은 현장 관행과 실습에 관한 경험 그리고 失業경험기간이 실패자 보다 짧으며 사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창의적인 기술과 경험적 자질 그리고 시장의 급 변화를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3.2 성공 창업자의 특성

사업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기업가 특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특성들이 사업성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성공은 이러한 개인특성 외에 주변 인물들의 도움, 경제 환경으로부터의 기회 등 많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창업 성공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갖춘 완전한 창업가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보통 창업가들은 동업자, 협조자, 관리자들로부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성공한 기업가들로부터 벤처마킹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인특성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그 성공비결을 배고 활용할 수는 수 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된 행태를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적극적인 도전의식과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 ②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술선수범함
- ③ 강한 인내력과 결단력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성과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이러한 공통특성들은 장차 성공적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이다.

(1) 사업의 몰입도, 결단력, 인내심

성공한 기업가들은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결단력과 인내심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많은 벤처캐피탈회 사들은 투자여부의 결정에 있어 기업가가 얼마나 자신의 시간적·재정적 자원을 실제적으로 투입하고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몰입 정도가 사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강한 성취욕구와 성장욕구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스로 설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뛰어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상향 조정된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도전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실적을 계속하여 뛰어넘는 데 노력한다.

(3) 기회 및 목표 지향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자원과 전략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는 기회 지향적 성향이 있다. 그리고 높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 한다.

(4) 주도적이고 강한 책임감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5) 끈질긴 문제해결 노력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에 따라 인내성이 강한 편이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념도 빠르다.

(6) 낙관적 현실주의와 유머감각

외부환경과 자신의 강점, 약점 등에 관한 냉철한 판단

을 중시하는 등 매우 현실적이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 자세를 견지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등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피드백의 활용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재빨리 수정한다. 이에 따라 유능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8) 계산된 위험감수와 위험의 공유

뛰어난 기업가는 도박사가 아니다. 그들은 미리 세심하게 계산을 한 후 결정을 내리며, 공동투자 또는 동업을 통해 곧잘 위험을 공유하려 한다.

(9) 지위와 권력에 대한 낮은 욕구

권력욕구보다는 성취욕구에 의해 행동한다. 지위나 권력은 성공의 결과가 주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유능한 기업가는 독재자보다는 중재자 또는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10) 정직과 신뢰

정직과 신뢰가 없이 달성한 일시적 성공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신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활동을 한다.

(11) 신속한 결단과 실천, 인내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일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거나 일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12) 실패에 관한 적절한 관리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다. 비관적 상황에서 낙관을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13) 팀 구축자이며 영웅 메이커

유능한 기업가는 독불 장군 식으로 일하기보다는 열의에 가득 찬 팀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한다. 또한 자기 혼자 영웅이 되기보다는 관리자들을 영웅으로 만들

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 아울러 뛰어난 기업가는 성과를 나누어 갖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성과 자체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위와 같은 성공기업가의 바람직한 특성은 상당한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동기유발 되었을 때 더욱 빠르게 학습될 수 있다.

IV. 창업 교육

4.1. 창업 교육과 창업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자는 여러 면에서 비창업자와 다르다. 그러면 창업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질이 타고 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Gartner (1985)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는 개인적 성격과 개인적 배경에 의해서 비 창업자와 다르다고 한다. 더욱이 창업자들 간에는 더 다양하게 다르다고 한다. 이는 창업자의 자질이 후천적 환경과 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성격과 품성 및 능력은 교육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개인적 성장배경이라는 후천적 환경에 따라 사람의 능력은 물론 의지 동기부여 등이 다르기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업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성장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 간에도 다양함이 많이 존재하고 똑 같은 창업자는 없다고 한다(Mckelvy, 1982).

창업자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창업자를 비창업자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Gartner, 1985).

- (1) 직무만족
- (2) 과거의 직장 및 사업 경험
- (3) 창업자인 부모
- (4) 나이
- (5) 교육

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분명 교육이 창업자와 비창

업자의 자질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가정교육이 한 인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사내는 물론 사외 교육도 중요시 여기고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 경험의 일부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범주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5가지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들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병주(1998)도 창업자는 태어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창업교육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가에 대한 개념은 타고난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하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 활동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인 Clark et al. (1984)의 연구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89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관련과목 수강 후 창업계획의 수립에 들어갔거나 창업을 고려하게 된 학생이 전체학생의 36.9%를 차지했고, 창업에 대해 고려해 보고 있는 학생이 42.2%로 나타났다.

또한 조병주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Timmons (1994)는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자가 모든 경영지식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 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워크 습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Timmons (1994)는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의 창업의지의 양양은 물론 창업 준비 과정 및 기업 성장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 필수적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계획된 준비기간이어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배종태, 1998).

나아가 창업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창업학습을 실시하면 창업을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의 동기 부여는 물론 창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Timmons (1994)는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창업에는 나이와 학력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창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른 창업정신을 계고시키고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 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등 창업경영 방법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이들에게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계고시킬 수 있다.

4.2. 미국에서 창업교육 현황

미국의 경우 60년대 말부터 시작해 그 후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창업분야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창업론'과 '중소기업경영론' 등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설치하는 대학과 대학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Solomon, Fernald and Weaver, 1993 ; Timmons, 1994).

미국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bson college는 '창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창업전·창업시·창업후의 3단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였고, 현재 필수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창업가정신 분야의 교과목만도 12개를 개설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학부과정과 MB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T에서는 MBA 과정의 하나로 '신상품 및 벤처개발 (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은 2개를 포함하여 11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경영대학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창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배종태, 1998).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창업 교육

으로 인하여 1987년도의 미국 대학 신입생의 46%가 졸업후 창업을 원했다 (Timmons, 1994). 또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까지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Ewing Kanffman's 창업 연구센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생(MBA)의 90%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졸업한지 10년 된 졸업생들의 많은 수가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1/3정도가 스스로 창업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 (Timmons, 1994). 이는 한국의 일류대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하기 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실이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미국의 창업 교육과 문화는 지난 20년간 마이크로 소프트, 오라클 및 델 컴퓨터 등의 많은 세계적인 벤처기업과 3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생시켰다 (Timmons, 1994). 또한 이들 새로운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산출을 통해 미국 국부를 증가시킨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Zahra, 1999).

4.3. 한국의 창업교육 현황

미국 창업 교육 역사에 비하면 한국의 창업 교육의 역사는 아주 짧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소수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내용을 보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 소자본 창업에 중점을 두었다 (박춘엽, 1993).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컨설팅회사, 은행 등의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무중심의 단기강좌를 활발히 개설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박춘엽, 1997).

KAIST에서는 1993년부터 대학원과정으로 기술 창업론을 개설하고 있고 1998년부터는 학사과정 대상으로 벤처경영론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에서 벤처경영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벤처 및 창업관련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배종태, 1998).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1999년 첫 교양과목으로 채택된 '벤처기업론'은 1999년 2월 26일 수강신청 접수 첫날에 정원 400명이 마감돼 이 학교 200여개 교양 선택 강좌 중 학생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인천대도 이

변 학기에 새로 개설한 '무역과 창업경영' 등의 강좌도 정원 60~100명을 단숨에 채우며 인기과목 대열에 새로이 들어섰다(중앙일보, 1999. 3. 2 : 한겨레신문, 1999. 3. 5).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창업 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도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9. 3. 2).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창업교육은 성장할 것이며, 아울러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화·이명자, 1998). 한편 한국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벤처비즈니스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모두 1천9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학교기업은 대학별 육성계획 공모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성공을 거둬 융자금을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확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융자 상환액은 해당 대학이 새로운 학교기업에 채용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문화일보, 1999. 3. 13). 이렇게 대학 내의 창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물론 나이와 학력에 제한 없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권 교육시스템에서는 이제 겨우 4년제 대학에서만 창업에 대한 기초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숭실대와 호서대 등 2개 대학만이 1999년 1학기부터 창업에 관한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호서대학교에서 벤처전문대학원이 1999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벤처전문교육의 성공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2년제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창업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2년제 대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함에도 한국 제도권 교육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V. 한국의 벤처창업 교육전략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 산업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할 위대한 창업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교육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벤처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위대한 벤처창업가를 양성해 왔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막 벤처창업교육을 실시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벤처창업 교육의 태동기에 있는 한국은 벤처 창업 교육에 있어서 미국식으로 본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나라이다. 미국은 역사가 230년 밖에 안 되는 다민족 합중국이며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5000년의 장구한 역사와 단일 민족으로서 국토가 미국의 100분의 1 밖에 안 되고 인구밀도가 전 세계에서 3-4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으며 자원 빈국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국토가 분단된 쓰라린 아픔을 지금도 안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은 아주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은 미국인과 그 성장 배경이 다르고 교육과정도 많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인과 미국인은 똑 같은 인간으로서의 재능과 본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을 위한 벤처 창업교육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기본적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벤처 창업 교육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Lee et .al. (2002)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한국과 같은 중진국 또는 피지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벤처 창업의 교육효과가 더 높다는 실증 분석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같이 벤처창업 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벤처창업내용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문화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보다 벤처창업교육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벤처 창업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잘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선진국보다 더 커서 장래의 한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위대한 벤처창업가 배출을 위한 벤처창업교육전략을 수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벤처창업교육은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강조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실시해야 한다. 벤처 정신이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그 정신이 강한 민족은 지속적인 도전과 경쟁으로 승리를 차지했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항상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 1910년 조선과 일본의 치욕적인 합병도 조선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보다는 구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생들에게 벤처 창업 교육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미국과 달리 먼저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즉 한국사의 올바른 교육의 뒷받침 없는 벤처창업교육은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다.

(2) 벤처창업의 기본정신은 나 자신만이 부를 획득하여 잘 산다는 것보다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그 것을 인류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벤처창업을 새로운 기술로서 빠른 시간 내에 부를 획득하여 부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올바른 벤처창업 교육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릇된 벤처창업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 벤처 기업가인 (주)새롬의 대표인 오상수씨가 분식결산을 주도 했다는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2002.11.09)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벤처창업 정신은 초등학교부터 이타정신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벤처창업교육을 받은 벤처창업가들은 자신만을 위한 불법적인 창업을 하지 않고 인류에 기여 하면서 자신의 부도 쌓는 바람직한 성공 벤처기업가가 될 것이다.

(3) 벤처창업교육은 모험정신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험정신은 현재의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는 양성이 될 수 없다. 모험정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 경제적인 사고만을 갖고서는 생성될 수 없다. 성공의 확률이 극히 적은 모험일수록 투자에 비하여 기대 값은 보잘 것 없다. 모험정신은 비합리적 비경제적 비논리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대한 벤처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와 함께 비합리적 비경제적 사고의 함양도 필요하다. 이러한 비합리적 비경제적 사고는 어려서 양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의 유치원에서부터 함양해야 위대한 벤처가가 나올 수 있다.

(4) 벤처창업 교육에는 모험정신과 마찬가지로 감성의 함양이 중요하다. 감성과 창의력은 인간의 우뇌활동이며 상상력과 함께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뇌의 왕성한 활동이 없이는 창의력을 기초로 한 벤처창업능력이 함양될 수 없다.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창의력 향상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그러므로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의 하나인 수리연산 교육을 너무 일찍 시키는 교육을 지양하고 우뇌중심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5) 벤처창업은 팀워크를 중요시 한다. 개인 능력 함양 위주의 한국의 현재 교육으로는 팀워크를 잘 하는 창업가들을 양성할 수 없다. 팀워크는 어려서부터 학습과 특히 체육 활동에서 양성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체육은 체육 엘리트주의 교육이어서 일반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팀워크를 통한 체육활동을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 브라스 밴드 등의 활동 참가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오직 수학능력 점수 향상 중심의 현 교육으로는 전혀 팀 워크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팀워크의 벤처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특별활동 및 체육활동을 통한 팀워크의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필요하다.

VI. 결 론

선행연구들은 창업자는 태어나기보다는 후천 적으로 교육을 받고 양성된다고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창업자의 양성 과정에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경험,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창업자들인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하여 창업에 대한 문화와 사회적, 교육적 배경이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배경을 논했다.

그리고 한국의 벤처 창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벤처창업 교육의 장기 전략은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 내용을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바꾸고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는 문제와 함께 비논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도 함께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서 인류의 발전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한다. 알기 위주의 역사 교육에서 추리와 논리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역사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벤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관은 벤처정신을 함양한다. 그리고 전 학생들의 팀워크를 양성하기 위해 전 학생들이 구기운동 등의 체육활동을 즐기는 생활체육의 구축이 시급하다.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을 위한 체육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전학생들이 팀워크를 하는 체육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춘엽, "한국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실태연구 :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pp.79-114, 1993.
- [2] 박춘엽,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pp.251-277 1997.
- [3] 배종태,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156-180, 1998.
- [4] 조병주, "창업교육 :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27-47, 1998.
- [5]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과목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pp. 159-171, 1996.
- [6] 한정화·이명자,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5-26, 1998
- [7] Brockhaus, R. H., "The Effect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18, No. 1, 37-43.,1980a
- [8] Brockhaus, R. H.,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3, 509-520.1980b
- [9] Carnier, C. "Intra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An Explorato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5-20, Fall, 1996.
- [10] Clark, B. W. et al.,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p.26-31, April, 1984.
- [11] Gartner, W. B. 1985. "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696-706.
- [12]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4, pp.11-22, 1989.
- [13] Kirzner, I. M., Discovery and the Capitalist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5
- [14] Knight, F.,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Mifflin.,1921
- [15] Lee, Sang M. and Peterson, Suzanne J.,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35, No. 4, 401-416.2000
- [16]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38:2.,1968
- [17] McKelvey, B., Organizational Systematics-Taxonomy, Evolution, Classifi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2
- [18] Morrison, Alison, "Entrepreneurship: What Trigger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6, No. 2, 1999.
- [19] Moon, H. C. and Peery, Jr. N.,

- "Entrepreneurship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cep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Entrepreneurship. 1997
- [20]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21] Solomon, G. T., L. W. Fernald Jr. and L. M. Weaver, "Trends in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 An Updat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Proceedings, 38th World Conference, Las Vegas, Nevada, U. S. A., pp.230-242.1993
- [22] Timmons, J. A.,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 [23] Wortman, M. S.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2, pp.259-270.1987
- [24] Watson, K., Hogarth-Scott, S., and Nicholas Wilson, "Small Business start-ups: Success Factors and Support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4, No. 3. 1998

저 자 소 개

장 대 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미국 남오레곤 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MBA)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Ph.D.)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
 원 주임교수